

정·관계 핵심요직 역임...여의도 복귀 '컨벤션 효과' 기대

대선 출사표 던진 정세균 전 총리

대선 레이스 지지율 올려야 속제로 대중인지도·안정적 국정운영 평가 온화·외유내강 갈등 조정능력 탁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년 3개월 만에 총리직을 내려 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쟁에도 불을 지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호남출신인 정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으며, 당내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

다. 또 '검정고시 출신'에 '실물 경제통', '6선 의원'과 '국회의장'에 '국무총리'를 두루 거친 그의 이력이 대권 가도에서 얼마나 파괴력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정 전 총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2달여 남은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단시간 내에 지지율을 끌어 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18일 정가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1년 3개월 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면서 안정적이고 꼼꼼하게 국정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권 잠룡으로 꼽혀왔고 대중 인지도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만큼 높다. 정치권에선 정 전 총리가 여의도 복귀와 함께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며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마의 5% 벽'을 깬다면 충분히 해를 만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 전 총리 측근들은 이미 대선 캠프 가동 준비를 마쳤다. 강점인 조직 다지기에 일찌감치 나섰고 외곽에서 정책 구상에도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평소 인맥이 두터운 정 전 총리의 조직이 최근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정 전 총리의 조직이 물밑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왔으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대규모 조직이 꾸러지면 세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대기업 임원과 산업부 장관을 지내 실물 경제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스터 스마일'이라 불릴 만큼 특유의 온화함과 외유내강형 성품으로 갈등 조정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다. 최근 자신이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밝힌 정 전 총리는 SNS를 통해 "행편이 어려워 중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졸업 후 1년 넘게 나뭇집하고 화전을 일구며 집안일을 도왔다"며 "그러다 공식 학교는 아니지만 수업료가 들지 않는 고등공민학교에 매일 왕복 16km를 걸어 다니며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쳤다"고 했다. 그는 이후 고교에 입학, 3년 내내 근로장학생으로 매점에서 빵을 팔아 장학금을 받았으며 전교회장까지 하고서 고려대 법대에 진학했다. 정 전 총리는 "가난하다고 해서 꿈조차 가난할 순 없다. 저에게 검정고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한 토양이자 꿈을 키우는 자양분"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졸업 후엔 쌍용그룹에 입사해 종합상사인 (주)쌍용 임원을 지내며 실무경험에 대한 감각을 키웠다.

그는 1996년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눈에 띄어 정계에 입문

했다. '미스터 스마일'이란 별명에 걸맞게 온건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앞세워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거쳐 당 대표만 세 번을 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소수 야당을 이끌면서 2010년 천안함 사건의 북풍 속에서 기적과 같은 지방선거 승리를 이뤄냈다.

지난 2012년에는 고향인 전북에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겨 홍사덕 전 의원을 꺾었고 4년 뒤엔 유력 대권 주자였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압승을 거두는 저력을 보였다. 6선 고지대 오르며 국회의장이 된 정 전 총리는 촛불 탄핵사태와 정권교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야 협치를 추구하며 정국을 원만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18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선출된 홍영표(왼쪽부터), 송영길, 우원식 후보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리·5개 장관·대법관 후보자 이달말 동시다발 청문회

여야가 청문회 정국 준비에 나선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조만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다발로 진행한다. 천대업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낸 데 이어 이번 주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동의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도 규정한 법률에 따라 청문회는 이르면 이달말 말부터 줄줄이 열리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이번 주 본회의 의사 일정을 협의하면서 청문회 일정을 가안으로 정해두고, 추후 구체적인 전략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는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원내 과반인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자력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인준 강행의 책임론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게 부담이다. 민주당은 김부겸 후보자가 대구·경북(TK) 출신의 비주류로 4선 의원을 지내며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무난한 인준을 기대하는 눈치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첫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도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베풀고 있다. 김 후보자가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지칭하는가 하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무(無)공천에 사실상 반대할 것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인준이 필요없는 국·산·과·기·고·용·혜·수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해 문제가 확인되면 지명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20일 광주서 합동연설회...민주당 대표 경선 불꽃대결

송영길·우원식·홍영표 3파전 확정

더불어민주당의 5·2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이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후보(선수 기준) 간 3파전으로 확정됐고, 오는 20일 광주를 시작으로 합동

연설회를 연다. 이상민 중앙당선관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예비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후보 4명 가운데 정한도 용인시의원은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이날 예비경선에는 중앙위

소속 선거인 470명 중 297명(63.19%)이 투표에 참여했다. 득표 수와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1991년생 지방의회 의원인 정한도 후보는 청년 지지를 앞세워 도전장을 냈으나 이번은 없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 합동연설회는 오는 20일 광주·전주부터 시작된다. 이어 대전·경주(22일), 부산·대구(24일), 춘천·서울(26일) 순으로 진행된다. /오광록 기자 kroh@

당정청 갈등 최소화, 국정운영 안정 마무리 포석

김부겸 총리 카드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택하면서 재보선 참패에 따른 여론의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김부겸 카드'를 통해 집안 단속에 성공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민주당 중진 김 후보자를 앞세워 당과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당·정·청 가교역할'을 통해

임기 말 당·정·청 갈등을 최소화하며 안정적 국정 운영을 노렸다고 할 수 있다. 역대 정권에서 정치인을 마지막 총리를 발탁한 사례는 드물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부(현승중)를 시작으로 김영삼 정부(고건), 김대중 정부(김석수), 노무현 정부(한덕수), 이명박 정부(김황식), 박근혜 정부(황교안)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총리는 여의도 물을 먹지 않은 비정치인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김부겸 추천'에 부담스러웠다는 말도 있다. 자기 색깔이 강한 정치인

은 임기 말 안정적 국정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 또는 여성을 총리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친문'으로 분류되지 않는 점도 눈길을 끈다. '친문' 일색인 당심과 민심의 거리감을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에 문 대통령이 일정한 답을 내놓은 셈이다. 김 후보자가 대구·경북(TK)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만큼 냉랭한 TK 민심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권선호도, 윤석열 25% 이재명 24% 양강 구도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국갤럽의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총선 직후 40%를 넘었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은 5%로까지 떨어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4%) 등 군소 주자들과 비슷해졌다. 1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묻은 결과 윤 전 총장이 25%, 이 지사가 24%로 집계됐다. 윤 전 총장은 2주 전보다 1% 포인트 올랐고 이 지사는 변함이 없었다.

연령대별로 윤 전 총장은 50대(32%), 60대 이상(43%)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이 지사는 40대(37%)와 30대(26%)의 지지가 컸다. 지역별로는 윤 전 총장이 대구·경북(34%)과 서울

(28%), 부산·울산·경남(28%), 대전·세종·충청(27%)에서, 이 지사는 경기(31%)와 광주·전라(28%)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중도층 지지율은 윤 전 총장(30%)이 이 지사(20%)에 크게 앞섰다. 2주 전 처음으로 한 자릿수(7%)로 떨어진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엔 5%로 나타나 안철수 대표(4%)와 무소속 홍준표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상 2%)과 큰 차이가 없었다.

내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55%,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34%였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2주 전보다 정권 교체론은 3%포인트 올랐고, 정권 유지론은 1%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